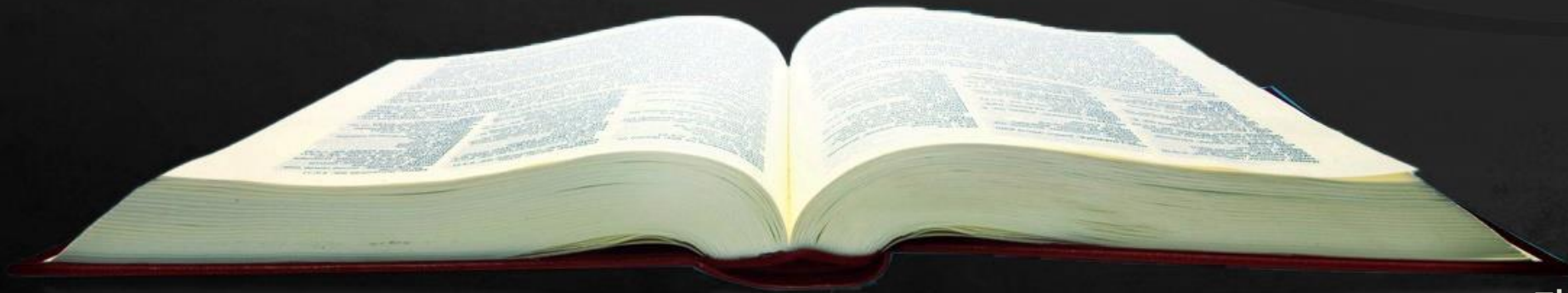


어둠을 밝히는

빛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요 12: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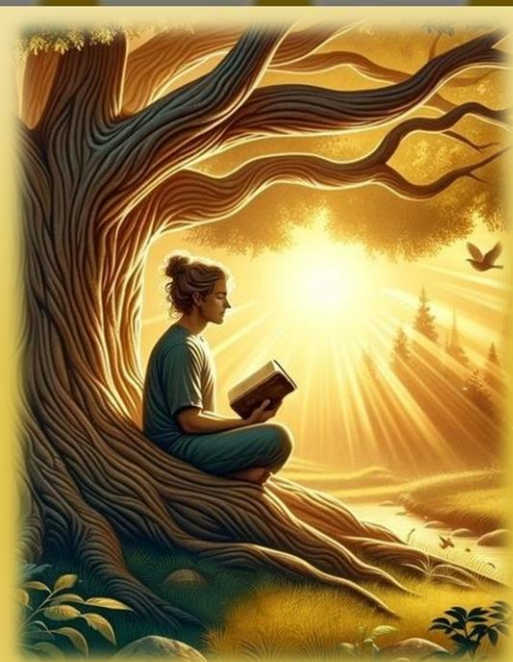




전쟁의 승패는 작은 전투들을 이기는 여부에 달려있습니다.

(그리스천을) 핍박하는 전투에서 패배하자 사탄은 새로운 계획, 즉 타협안을 고안해냈습니다. 거짓이 진리에 섞이자 수백만 명이 변질되었고 생명 없는 기별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 전투에서 우리를 지켜줄 단 하나의 안전 장치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과 그분의 거룩한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 ➔ 진리를 지키기 위한 전투:
  - ✚ 진리와 거짓.
  - ✚ 교회가 타협함.
- ➔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전투:
  - ✚ 성경 말씀안에서의 안전함.
  - ✚ 사람의 논리(생각).
- ➔ 마음을 차지하려는 전투.



**진리를 지키기 위한 전투**

# 진리와 거짓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 1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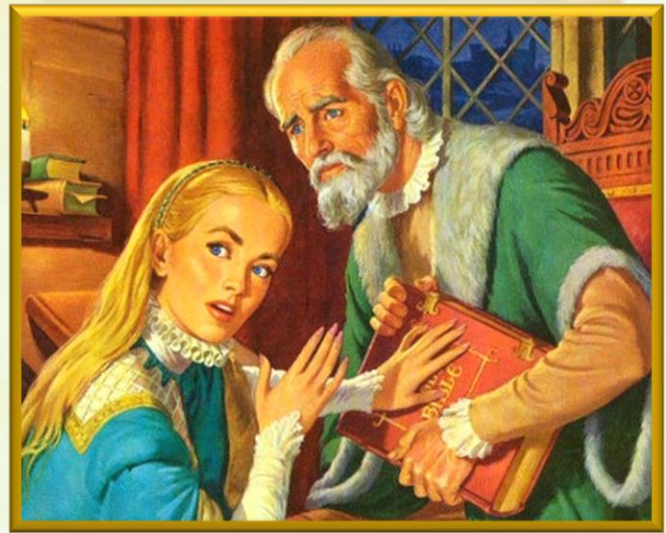


예수님은 진리이시므로 그분은 모든 진리의 아버지입니다(요 14:6). 모든 진리, 모든 믿을 수 있는 것, 그리고 모든 참된 것들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진리는 우리 안에 생명을 창조하십니다.

반면에 사탄은 거짓의 아버지입니다(요 8:44). 모든 거짓말, 모든 사악한 속임수, 모든 거짓이 섞인 진리는 사탄에게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의 거짓말은 우리 안에 죽음을 가져옵니다.

예수님께서 적과 싸우실 때 “기록 되었으되...”라고 말씀하시며 성경을 모든 진리의 근원으로 사용하셨습니다(마 4:4; 21:13).

그러므로 사탄은 성경을 감추거나 왜곡해서 망가뜨리려고 애써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중세 시대, 즉 “암흑 시대”에 로마 교회를 사용해서 이 목표를 부분적으로 달성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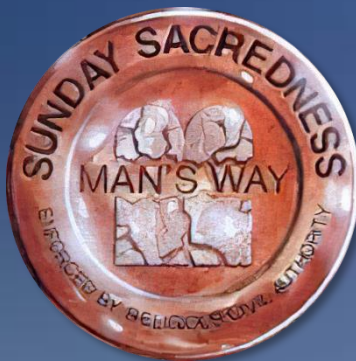


# 교회가 타협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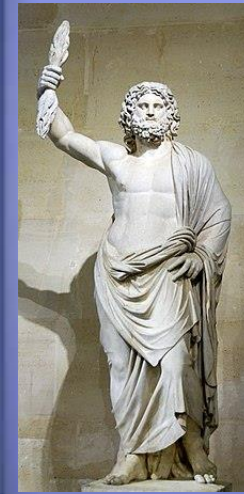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좇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행 20:29-30).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을 떠나 가면서 그들이 앞으로 당할 안 밖의 여러 문제들을 말해주었습니다(행 20:29-30).

1. **굶주린 늑대들** . 로마 제국은 서기 64년부터 311년 (세르디카 관용칙령)까지 극심하게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2. **타락한 사람들** . 서기 4세기부터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안에 들어와 그들이 전에 섬기던 이방 신들의 관습을 진리와 섞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사탄은 진리를 부패시키고 교회에 우상 숭배와 일요일을 예배일로 지키게 하기 위해 “교회 안에 침투”하는 작전을 사용했습니다.



The statue of the Roman god Jupiter on the Capitoline Hill in Rome was reused and turned into a statue of Saint Pe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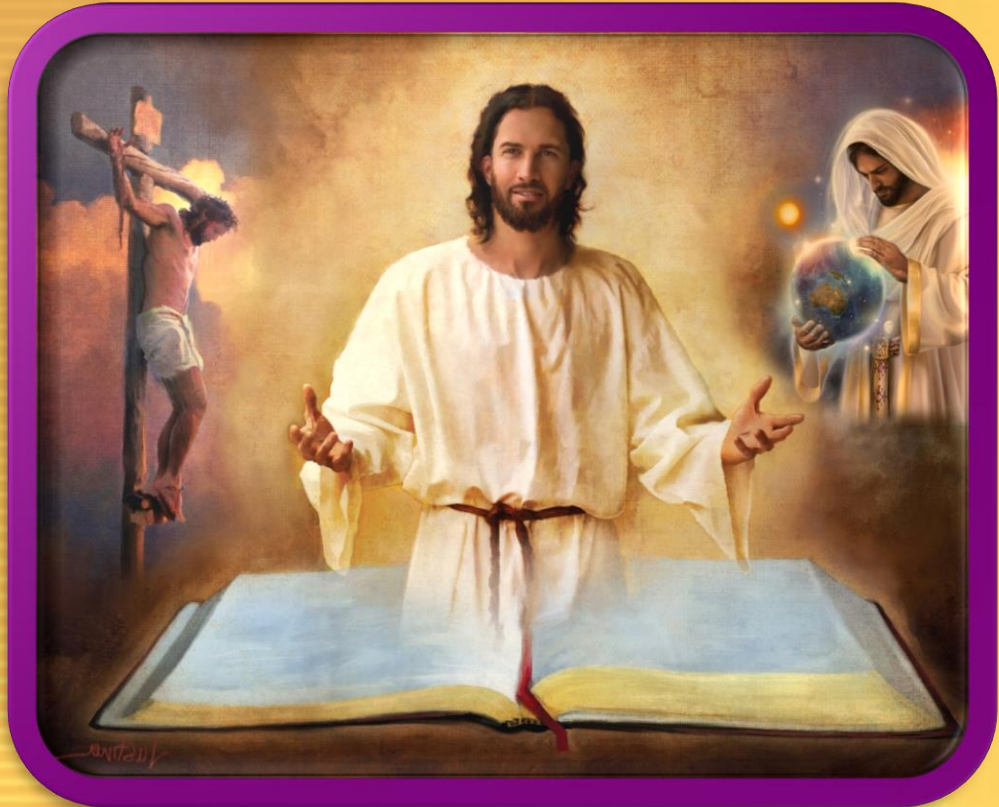
바울이 예언한 대로 교회는 이런 속임수들을 받아들였고, 진리를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 끝까지 그러할 것입니다(살후 2:7-12). 마지막 전투는 안식일 준수와 타협이 주요 쟁점이 될 것입니다.

#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전투



# 성경 말씀안에서의 안전함

“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 17:17)



하나님은 성경에 틀림 없는 그분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성경에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안에 있는 모든 책들과 장과 절(딤후 3:16)에서만 안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악마의 전략과 창조, 예수님의 탄생, 삶, 죽음, 부활 및 중보; 죄 용서; 재림; 새로운 땅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찾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성경의 일부, 예를 들어 창세기 1장과 2장의 창조이야기를 안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진리를 거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성경의 나머지 진리도 믿을 수 없게 되고 우리 삶의 안전도 확보할 수 없게 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시. 119:1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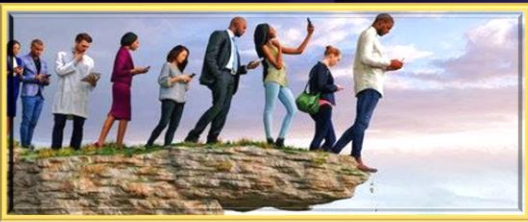
“주의 말씀을 열므로 우둔한  
자에게 비취어 깨닫게  
하나이다”

(시. 119:130)



# 사람의 논리(생각)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잠 16:25)



하나님께서 성경을 쓴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셨다면 그분 외에 누가 성경을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벧후 1:20; 요 14:26)?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고전 2:14).

사람의 논리적 해석의 한 예는 18세기 이래로 성경을 “학문적”으로만 해석하려한 고등비평이 있습니다.

고등비평은 기적을 부인하고 미래를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시는 성경에서 아무런 유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의심할 바 없이 우리의 원수는 사람이 보기에 바른 것 같지만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길로 우리를 데려가려 합니다. (잠 16:25).





“깊은 영적 어둠이 온 세상과 사람들을 덮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데에 회의적이고 말씀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이 진짜인지 그리고 진리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추리와 상상이 하나님의 말씀의 영감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책은 악한 사탄이 사람들과 연합해서 신성한 품성의 모든 것을 구름과 어둠 속에 가두려는 공격을 견뎌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인 능력으로 이 거룩한 책을 지금의 형태로 보존하셨습니다. 이 책은 사람들에게 천국으로 가는 길을 보여 주는 지도 또는 안내서입니다.



**마음을 차지하려는 전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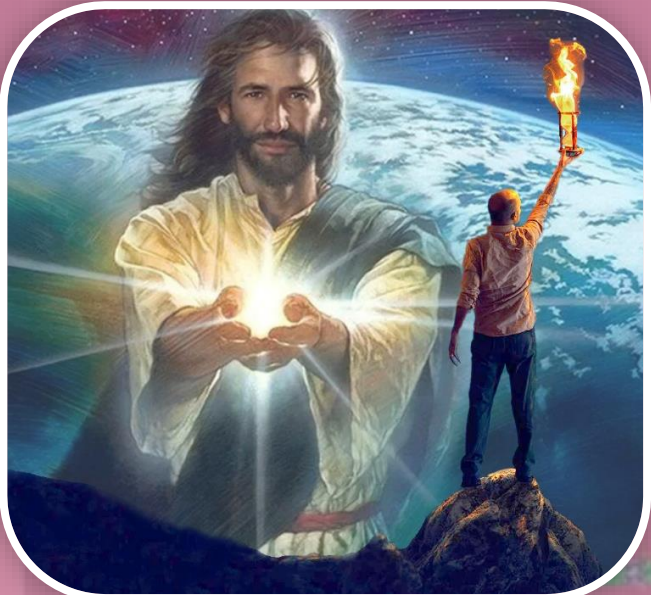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고후 4:4)

스페인 속담에 “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보다 더 눈먼 사람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보지 않으려고 애 쓰는 사람을 보라고 설득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 신”이 눈멀게 한 사람들도 마찬가지로입니다(고후 4:4).

잃어버린 사람들이 (참)진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알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알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진짜 중요한 것, 즉 구원에 대해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많은 것들로 그들의 마음을 채워 넣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눈 먼 상태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이 영적 어둠 속에 있을 때, 그곳을 비추는 빛이 있습니다. 빛이 되시는 예수님께서서 “어둠에 비취되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요 1:5).

이 빛을 받아들이는 우리는 원수의 작업을 무너뜨리고 예수님의 빛이 어둠을 뚫고 빛나게 할 수 있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을 여행하는 모든 사람들은 안전한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지혜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삶의 길을 걸을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며, 그분의 말씀은 언제나 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바로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가고, 그분의 지혜 안에서 걷고, 그분의 진리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이 하는 일들을 매번 쉽게 알아차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사탄이 어디에 함정을 파놓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탄의 간계를 이해하시며 우리 발을 안전한 길에 놓아주십니다.”